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산물 가공 장비

3종 신규 도입 확정

정읍시는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최근 농산물가공센터에 착유기와 열풍 세척기, 습식 분쇄기 등 신규 가공 장비 3종 도입을 확정하고 다채로운 제품 생산 기반을 다진다.

이번 장비 도입으로 기존 분말, 음료, 잼, 과자 중심의 가공 품목에서 벗어나 참기름과 들기름 등 유지류를 비롯해 양념(소스)과 반죽 형태(페이스트) 제품 등 다양한 가공품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착유기 도입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유지류 생산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습식 분쇄기를 활용해 양념과 반죽 형태 제품 개발도 가능해져 가공 제품의 품목 확대와 상품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신규 장비 시험 가동과 함께 공정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비별 적정 가공 조건과 생산 공정을 정립하고 농가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어린이 놀이시설

2곳 금주구역 추가 지정

부안군은 주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주구역은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어린이 생태놀이터와 해뜰마루 자연마당 어린이놀이터 총 2개소다.

금주구역 내에서는 음주행위가 제한되며, 계도기간 동안에는 현장 안내와 홍보 중심의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이후 10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주구역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머무는 관광도시 정읍으로’ 도약

콘텐츠 전문가 초청 팸투어 진행... 관광자원 콘텐츠화 중심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속도’

정읍시가 관광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과 지역 관광자원의 콘텐츠화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정읍만의 이야기’로 연결하며 머무르고 경험하는 관광도시로 방향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노미경 여행 작가와 드라마 작가 이금립 씨를 비롯한 드라마 제작자, 영화평론가 등 콘텐츠 분야 전문가 초청 사전 답사여행(팸투어)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내장산국립공원과 신성공소, 용산호, 정읍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 김명관 고택, 무성서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상화차거리 등을 둘러보며 정읍의 자연과 역사, 음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또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에도 참석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과 정신적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참가자들은 “정읍은 기대 이상으로 깊은 이야기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품은 도시”라며 “내장산의 자연과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인상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명관 고택과 인근 고택 체험관에서 진행된 한옥 숙박과 자연 밭상 체험에 대해 “정읍만의 색깔을 담은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전통한옥의 분위기와 지역 식재료를 활용



한 음식이 어우러지며 정읍 관광의 차별성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이번 팸투어는 일반 관광 홍보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단순 방문이나 소비 중심 관광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들이 지역의 공간과 이야기 구조를 직접 체험하며 ‘정읍다운 콘텐츠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관광 흐름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짧게 둘러보는 관광보다 지역의 분위기와 이야기를 전전히 경험하는 체류형·감성형 관광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정읍의 자연·역사·생활문화 자원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미경 작가는 “정읍은 자연과 역사, 음식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

진 도시”라며 “전전히 머물며 여행하고 싶은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금립 작가 역시 “정읍은 사람과 공간의 이야기가 살아 있는 도시”라며 “드라마와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연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정읍시는 올해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와 외국인 유명인(인플루언서) 초청 답사, 관광 빅데이터 기반 방문객 분석 등을 잇달아 추진하며 관광 콘텐츠 다변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이번 전문가 초청 답사가 정읍의 이야기를 드라마와 영화·출판·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미니수박’ 올해 첫 출하 시작

김영식 부군수, 고창미니수박연합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고창군이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미니수박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이 미니수박 출하 현장을 찾아 고창미니수박연합회(회장 강대성)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선 미니수박 생산 현황과 유통 확대 방안, 농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고창군 성내면 김진열 농가 포장에서 숙이 노란 미니수박 품종인 ‘블랙망고수박’ 첫 수확이 진행됐다. 이날 수확된 미니수박은 전국 이마트 매장으로 납품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군 미니수박 생산은 고창미니수박연합회(회장 강대성)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합회 소속 100여 농가가 블랙망고수박을 비롯해 블랙

보스수박, 애플수박 등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약 90ha에 달한다. 이는 2025년 기준 전국 미니수박 재배면적의 약 15%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국 최대 규모다. 올해 생산된 미니수박은 고창황도배 기유통과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을 통해 본격 출하될 예정이다.

미니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섭취가 편리하고, 다양한 색과 형태를 갖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일반 수박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36.1%(2024년 인구총조사 기준)를 넘어서는 등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소형 과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미니수박에 대한 유통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적극행정 통한 관광객 맞이 총력

변산마실길 샵스타데이 개화 맞아... 전략회의·현장 점검 실시

부안군은 변산마실길 주요 구간에 조성된 샵스타데이 개화 시기에 맞춰 관광객 편의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전략회의 및 샵스타데이 군락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14일 변산해수욕장 위케이션센터에서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샵스타데이 개화 현황과 관광객 방문 대비 주요 현안 사항, 안전관리 대책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이후 변산마실길 주요 구간을 직접 방문해 코스별 개화율과 현장 관리 상황, 관광객 편의 시설 등을 점검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변산마실길 샵스타데이 군락지는 1코스 새만금간척박물관 일원, 2코스 변산해수욕장 송포항 인근, 4코스 연포 해변, 5코스 도청리 쉼터 및 상그릴라 인근 등에 조성돼 있으며 매년 봄철 관광객과 사진 촬영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 경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전략회의를 통해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환경정비·교통관리·안전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으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는 안내시설 상태와 보행환경, 편의시설 관리 현황 등을 세심히 확인했다.

특히 군은 샵스타데이 개화 시기 동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관리와 환경정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신청·지급

소득 하위 70% 주민 대상, 1인당 25만원씩 지급 예정... 시용기한 8월 31일까지

고창군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7월31일까지 2차 신청·지급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 선정은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차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도 2차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합산 25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제외된다. 고창군은 약3만8000명에게 1인당 25

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성인은 개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표 신청하며,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창사랑상품권(지류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고창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가 확대됐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뜰서비스, 카드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구성 및 건강보험료 변동 등으로 지급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